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황상민* · 김도환**
연세대 심리학과

2002년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나타난 다양한 한국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세대 차이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차이가 사실은 연령이 아닌 출생동시집단(cohort group)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특정한 출생동시집단의 심리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초점이라는 '심리적 세대 모형'(황상민, 1999)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심리적 세대를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개념화한 후에, 2003년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9월에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12가지 심리적 가치 기준들(① 가부장적태도, ② 남아선호, ③ 사이버보헤미안, ④ 개방성, ⑤ 부르조아, ⑥ 여피, ⑦ 전통가치, ⑧ 사회의식, ⑨ 수직-개인주의, ⑩ 수직-집단주의, ⑪ 수평-집단주의, ⑫ 수평-개인주의)의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에는 5가지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명칭과 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현실주의적 동조형(33.4%), 물질주의적 신봉건형(23.2%),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6.8%), 공동체적 개방형(14.0%), 전통주의적 보수형(12.6%). 연구 결과에서 5가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포와 각종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개인이 지닌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다양한 현실적 갈등 해결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라이프스타일, 세대, 세대 차이,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 교신저자 :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swhang@yonsei.ac.kr)

** 교신저자 : 김도환(연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kimin67@chollian.net)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세대 차이’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이’란 인정할 수 없는 극복의 대상이다. 태생적 차이를 유발하는 기준들, 예를 들면 ‘지역 차이’, ‘성 차이’, ‘학벌 차이’ 등은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의 세대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쉽게 나온다.

당신의 연령이 17-39세라면 일단 P세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령이 45-64세라면 WINE세대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주간조선, 2004년 5월 6일자).

한국 사회의 세대 차는 무엇이며,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이 20, 30대로 대표되는 신세대와 50, 60대 기성세대 사이의 차이인가?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세대 차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세대차는 단순히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아닌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 발달에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바뀔 때 따라 일어나는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임과 동시에 이 사회의 변화를 누가 이끌어가며, 자신의 삶을 위한 사회 가치와 규범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아니 월드컵과 촛불 시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서 한국 사회의 규범과 변화를 이끌어낸 세대 집단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들 집단이 기성세대와 다른 발달적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의 사회적, 집단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심리학적 질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대 차이의 특성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심리학 연구는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함과 동시에 이런 혼란이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대 차이와 관련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를 조사한 한 연구(Inglehart, 1997)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커다란 세대

차이를 보이는’ 사회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세대차의 인식은 바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개념이 된다(박재홍, 1992; 나은영·차재호, 1999; 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박길성, 2002; 설동훈·정태석, 2002).

한국 사회의 변화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세대 집단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 세대 집단이 만들어 내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 통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매력적인 연구 주제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세대 집단을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려는 시도는 ‘심리적 세대 모형’에서 시작되었다(황상민, 1999; 황상민·양진영, 2001). 이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출생동시집단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 행동방식, 의식특성을 인생주기(life-cycle)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① 해방전후복구 세대, ② 근대화 세대, ③ 경제부흥기 세대, ④ 민주화 세대, ⑤ 자율화 세대, ⑥ 신인류 세대의 6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고).

심리적 세대 모형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근거한 세대 설명과 다르다. 이 세대 모형은 연령차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이 현재 보이는 차이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연령이 아닌 출생동시집단(cohort group)이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며, 특정한 출생동시집단의 심리적 속성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심리적 속성은 해당 출생동시집단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과 생활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특성은 특정 출생동시 집단의 세대적 특성이기도 하다.

출생동시집단(cohort)의 심리적 속성에 의해 세대집단을 구분하려는 발상은 Mannheim(1952)의 주장에서 시작된다. Mannheim은 세대 차이를 ‘경험 성층화’(經驗成層化; stratification of experi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인상은 경험 목록의 가장 밑에 위치하며, 기층 경험 위에 그 이후의 경험들이 순서적으로 차곡차곡 누적된다. 물론 경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 경험과

표 1. 한국 사회 구성원을 나타내는 주요 세대별 인생주기와 연령집단 구분(황상민·양진영, 2001에서 재인용)

| 세대계열 | 현재 연령대 | 출생년도 | 청소년기 | 현재의 인생주기와 발달과업 (Levinson의 이론에 근거) |
|----------------|--------|-----------------|-----------------|---|
| 해방전후복구 세대 | 60대이상 | 1925년 -1934년 | 1943년 -1954년 | 성인후기: 일생에 대한 정리, 사회적 고립에 의해 우울증, 경직 증가, 친숙한 것에 대한 애착증가, 유산 남기려는 성향 증가. |
| 근대화 세대 | 50대 | 1940년 -1949년 | 1959년 -1969년 | 중년절정기: 관조와 내적인 탐색의 시기, 은퇴, 성역할에서 벗어 나기 시작 |
| 경제부흥기 세대 | 40대 | 1950년 -1959년 | 1969년 -1979년 | 중년기: 중년위기를 거쳐 적합한 새로운 삶을 모색해서 안정찾 기, 후배양성/지도, 전문 지식과 자기이해에 있어 보다 성숙 |
| 민주화 세대 (386세대) | 30대 | 1960년 -1969년 | 1979년 -1989년 | 성인초기와 안정기: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최선/ 책 임감과 개입으로 자신투자/스스로 성취/자녀양육 |
| 자율화 세대 (X세대) | 20대 | 1970년 -1979년 | 1989년 -1999년 | 성인입문기: 이상, 꿈, 에너지, 희망, 자신에 대한 비전/일을 준비, 스승찾기, 친밀감 형성, 최초의 인생구조 창조 |
| 신인류 세대 (N세대) | 10대 | 1980년 -1990년 | 1998년 -2010년 |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시도, 자아정체감 형성, 또래의 영향, 자아중심적 성향 |

의 관련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며, 이러한 경험
성숙화가 개인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
다. Mannheim의 이론적 입장은 실제 경험적인 연구들
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예를 들어 Schuman과 Scott(1989)의 사회화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미국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각
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사건들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는데, 그 결과 이들은 현재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경험한 사건들
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바로 그 시기에 개인의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출생동시 집단의 세대별 심리적
속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되었다(황상민, 1999; 황상
민·양진영, 2001).

한국 사회의 최고령 코호트 집단은 ‘해방전후복구 세
대’이며, 이들은 농업중심의 경제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
민들이 절대 빈곤층을 이루었던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
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상황에
서 해방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는 ‘근대화 세대’인데, 이들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베트남전
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출산 억제정책, 반공의식
함양, 학력수준 증가, 이농현상 대두와 같은 시대적 상
황이 일어나던 196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현재
는 중년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에 해당한다.

세 번째 ‘경제부흥기 세대’는 유신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 수출진흥정책,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의 육성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는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자녀교육
비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
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들로서, 현재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민주화 세대’는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소위 ‘386 세대’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남북고향 방문단 교류나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시
대적 흐름 속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위시한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달로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향유하고, 사회적으로 통
급이나 교육 등 각종 규제가 해제되던 시대를 경험하였
다.

‘자율화 세대’(일명 X세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정치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며 민주화가 정착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IMF 경제 위기나 성수대교나 삼
풍백화점 붕괴를 경험하면서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20대에 경험하면서 지금은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에 걸친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신인류 세대’(일명 N세대)는 경제적 회
복과 정보화 산업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남북
간 교류의 증가 등 정보화 사회와 통일시대에 따른 혼
란과 기회가 혼재된 급속한 사회환경을 경험하면서, 산

업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 환경에서 사이버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10대들이다.

이들 6가지 출생동시집단은 ① 전통적 가족주의, ② 전통적 집단주의, ③ 개인주의, ④ 문화적 개방성, ⑤ 물질주의, ⑥ 사회의식, ⑦ 능력/역할주의, ⑧ 전통위계 의식의 8개의 가치관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황상민·양진영, 2002).

‘해방전후복구 세대’와 ‘근대화 세대’는 전통가치에 기반을 두었으며, ‘경제부흥기 세대’는 물질주의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에 전념하였다. ‘민주화 세대’는 개혁 성향과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성향을 보였다. ‘자율화 세대’는 새로운 것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성향의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신인류 세대’는 자기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이미지가 두드러졌다.

코호트에 기초한 세대의 심리 모형은 단순한 연령 구분에 의해 기준보다 다양한 출생동시집단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황상민과 양진영(2002)의 연구에서는 출생동시집단을 심리적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이런 유형은 일차적으로 ‘전통·보수형’, ‘개인·개방형’, ‘중도·안정형’ 그리고 ‘사회·개혁형’으로 구분되어 명명되었다. ‘전통·보수형’은 전통적 가족주의, 위계의식과 집단주의 요인이 두드러졌다. 반면 ‘개인·개방형’은 이들 성향에서는 낮았으나, 문화적 개방성과 능력/역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요인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아주 높은 성향을 보였다. ‘사회·개혁형’은 사회의식과 능력/역할주의 요인이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중도·안정형’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비교적 높은 ‘사회적의식’과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정 세대 집단이 가지는 가치와 행동특성에 기초한 심리유형의 분류는 각 개인의 행동특성에 기초한 세대차와 세대 인식의 틀을 찾는 것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동일한 연령 집단에 속하더라도 각 개인이 각기 다른 가치와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호트적인 속성과 개인차를 모두 반영하는 개인의 세대 유형과 심리적 특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적 모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주목한 지점은 경영학이나 마케팅 분야에

서는 이미 1960대부터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이었다.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이란 “사회 전체 또는 일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이다(Lazer, 1963).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분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소비자 개인의 구매 행동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채서일, 1992; 박성연, 1996; 김홍규, 1998).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프스타일 분석의 틀은 VALS(Values and Lifestyles: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분석법과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 활동, 관심, 의견) 분석법, 그리고 심리통계적(Psychographics) 분석법 등이 있다(Solomon, 1994).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 중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채서일(1992)은 전통적인 양적연구방법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 바 있다. 반면 조혜정·엄기호(1999)는 질적연구방법을, 김홍규(1998)는 Q분석법이라는 주관성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을 탐색한 바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박성연(1996, 2000)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유명상표 패션추구형’, ‘보수적 사회관심형’, ‘실리적 편리추구형’, ‘보수적 상표의존형’, ‘실용주의적 가정지향형’, ‘생활 무관심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의 비율 변화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박성연(200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구체적인 소비자 행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에, 개인의 심리적 속성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모형 구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심리학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시도된 적이 아직 없다.

이에 황상민·양진영·강영주(2003)의 연구는 전술한 세대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것이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318명을 대상으로 이전 연구들을 통해 정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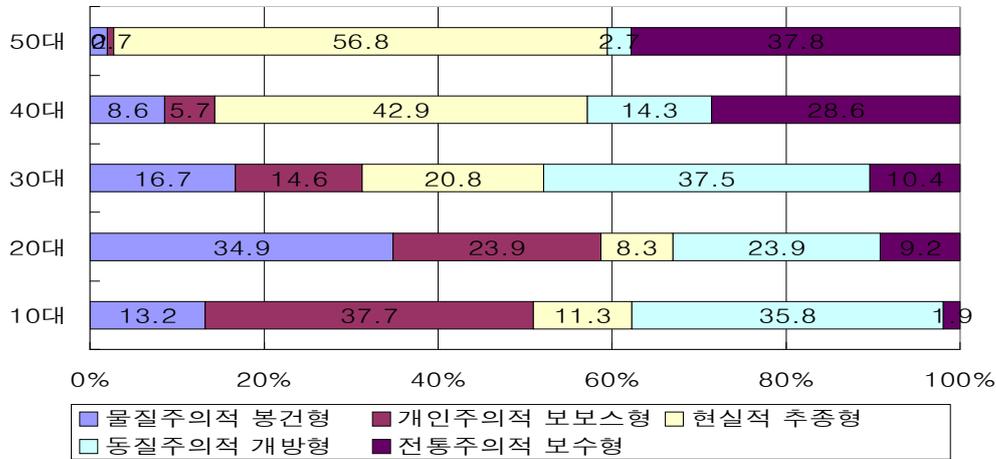


그림 1. 각 연령대별 라이프스타일의 분포 (황상민 등, 2003에서 재인용)

라이프스타일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12개 요인, 55개 문항이 정리되었다. 12개 요인들은 박사급 전문가 집단의 교차타당화 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명명되었다: ① 거부장적태도, ② 남아선호, ③ 사이버보헤미안, ④ 개방성, ⑤ 부르조아, ⑥ 여피, ⑦ 전통가치, ⑧ 사회의식, ⑨ 수직-개인주의, ⑩ 수직-집단주의, ⑪ 수평-집단주의, ⑫ 수평-개인주의.

이 연구의 목적은 12가지 심리적 속성들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상호배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 양상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되었다: ① 물질주의적 봉건형, ② 전통주의적 보수형, ③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④ 동질적 개방형, ⑤ 현실적 추종형.

각 연령대별로 5가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포 양상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5개 라이프스타일 유형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각각의 출생동시집단의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10대는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인 삶을 추구하면서 재미,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인정도 중요한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이 이들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얼핏 보기엔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동질적인 사람들에게

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즉 동료나 또래친구들에게는 너그럽지만 위계질서 속에서의 권위적 인물이나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편인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남아선호와 같은 전통 가치를 존중하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봉건형’이 거의 이들의 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10대에서도 주요하게 나타났던 ‘개인주의적 보보스형’(23.9%)과 ‘동질주의적 개방형’(23.9%)이 서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한편 30대에는 10대와 20대에서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동질주의적 개방형’(37.5%)이 이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자아나 자기 삶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못한 채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현실적 추종형’(20.8%)이 차지하였다. 이외에 ‘물질주의적 봉건형’(16.7%),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4.6%), ‘전통주의적 보수형’(10.4%) 순으로 분포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각 유형들이 10%이상의 균등한 분포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앞서 현실에 함몰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실적 추종형’이 40대(42.9%)와 50대(56.8%)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형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전통과 권위와 위계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며,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40대(28.6%)와 50대(37.8%)에서 또한 비중있는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상 연령 기준과 심리적 기준을 통합해서 설명하려는 것인데, 각 출생동시집단은 행동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동질적이지는 않으나, 해당 출생동시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존재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0대=동질주의적 개방형"은 아니지만, 연령 집단에 비해 30대에서 유독 동질주의적 개방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30대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설명들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현상들에서 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 반영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황상민·김도환, 2003), 컨셉트 제품의 감성 이미지에 나타난 라이프스타일(황상민·김지연, 2003), 온라인 게이머의 라이프스타일(황상민·장근영, 2003)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비판의 하나는 '일반화'의 문제였다. 즉,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인 20, 30대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전체 세대 집단이거나 특정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에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성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에 기초한 인구분포학적인 변인에 의해 각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심리적 모형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 특성에 설명이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것은 대담한 주장이나 추측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특히, 소수의 연구 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사회현상에 대한 심리학 연구에 대한 일반 사회과학자들의 불신은 설명하기 힘들었다.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도 부지불식간에 지니고 있는 "커다란 전집에 대한 일반화된 신념"의 오류와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스타노비치, 2003).

심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 구

분은 인구통계학적인 분류에 비해서 표집(sampling)의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울 것이라는 필자의 반론은 공유되기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이론적 배경 하에서, 최종 5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전국의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과 행동 양식을 명세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각 라이프스타일별 반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심리학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설명이 함의하는 바를 한국 사회의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면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 추출 방법은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Multi-stratified Random Sampling)이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pm 2.53\%$ 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25일 간이었다. 한 사례당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주)리서치앤리서치(R&R)에서 실사를 대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설문 내용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황상민·양진영·강영주(2003)의 연구에서 정리된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검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설문지는 Triandis(1995)의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주의 하위영역에 관한 4개 요인 16문항을 포함한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거부장적태도 (6문항), ② 남아선호

(4문항), ③ 사이버보헤미안 (5문항), ④ 개방성 (5문항), ⑤ 부르조아 (6문항), ⑥ 여피 (4문항), ⑦ 전통가치 (5문항), ⑧ 사회의식 (4문항), ⑨ 수직-개인주의 (VI, 4문항), ⑩ 수직-집단주의 (VC, 4문항), ⑪ 수평-집단주의 (HC, 4문항), ⑫ 수평-개인주의 (HI, 4문항).

조사대상자들에게는 각 문항들에 대해 Likert 척도 형식(1 : 전혀 그렇지 않다~6 :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생활방식과 가치를 고려하여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하였다. 모든 응답값들을 표준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은 모두 표준화되었다. 그리고 황상민·양진영·강영주(2003)의 연구 등에서 도출된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징에 비추어, 각 사례는 12개 가치 프로파일의 패턴 양상에 따라 5개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의 하나에 할당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연구들에서 이론적 배경과 요인분석, 군집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가장 전형적인 프로파일이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개별 프로파일 양상이 5가지의 표준 프로파일 중에서 어느 유형과 가장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판정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은 <표 3>과 같다.

1. 한국 사회의 라이프스타일 분포 양상¹⁾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 9월 현재 한국 사회에는 현실주의적 동조형(33.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물질주의적 신봉전형(23.2%),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6.8%), 공동체적 개방형(14.0%), 전통주의적 보수형(12.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라이프스타일의 특성과 분포에 대한 설명이 각각 <표 4>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에서는 황상민 등(2003)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라이프스타일 명칭에서 다소 바뀌었다. 즉, 황상민 등(2003)의 현실적 추종형이 현실주의적 동조형으로, 물질주의적 봉건형이 물질주의적 신봉전형으로,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공동체적 개방형으로 바뀌었음을 밝혀준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 전체 | 1500 | 100.0 | |
| 성별 | 남자 | 740 | 49.3 |
| | 여자 | 760 | 50.7 |
| 연령별 | 20대 | 357 | 23.8 |
| | 30대 | 384 | 25.6 |
| | 40대 | 331 | 22.1 |
| | 50대 | 357 | 23.8 |
| | 60대이상 | 71 | 4.7 |
| 거주지별 | 서울 | 332 | 22.1 |
| | 부산 | 121 | 8.1 |
| | 대구 | 78 | 5.2 |
| | 광주 | 41 | 2.8 |
| | 인천 | 78 | 5.2 |
| | 대전 | 43 | 2.8 |
| | 울산 | 31 | 2.1 |
| | 경기 | 288 | 19.2 |
| | 강원 | 49 | 3.3 |
| | 충북 | 47 | 3.1 |
| | 충남 | 61 | 4.0 |
| | 전북 | 63 | 4.2 |
| | 전남 | 67 | 4.4 |
| | 경북 | 89 | 5.9 |
| 경남 | 96 | 6.4 | |
| 제주 | 17 | 1.1 | |
| 학력별 | 초등졸 이하 | 103 | 6.8 |
| | 중졸 | 185 | 12.4 |
| | 고졸 | 798 | 53.2 |
| | 대졸 이상 | 411 | 27.4 |
| | 무응답 | 3 | 0.2 |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준으로 세분해 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chi^2=8.841, df=4, p>.05$, 그림 2 참고), 남자는 전통주의적 보수형에 약간 많고, 여자는 공동체적 개방형에 약간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데($\chi^2=179.555, df=16, p<.001$, 그림 3 참고), 20~30대는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 많으며, 40~50대는 전통주의 보수형이 많았다. 반면에 현실주의적 동조형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으나, 40~50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물질주의적 신봉전형은 모든 연령대에 22~25% 정도 고르게 분포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표 3.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성 확인을 위한 기준

| 유형 | 높은 성향의 가치 | 중간 성향 | 낮은 성향의 가치 |
|------------|---|--|---|
|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 ▲ 부르조아 ▲ 남아선호 ▲ 수평적 개인주의 ▲ 수평적 집합주의 | ○ 가부장적 태도 ○ 사이버 보헤미안 ○ 개방성 ○ 전통가치 ○ 여피 ○ 수직적 개인주의 ○ 수직적 집합주의 | ▼ 사회의식 |
|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 ▲ 여피 ▲ 수직적 개인주의 ▲ 사이버 보헤미안 ▲ 부르조아 ▲ 수평적 개인주의 | ○ 가부장적 태도 ○ 남아선호 ○ 개방성 ○ 전통가치 ○ 사회의식 ○ 수직적 집합주의 | ▼ 수평적 집합주의 |
| 현실주의적 동조형 | | ○ 가부장적 태도 ○ 남아선호 ○ 개방성 ○ 여피 ○ 전통가치 ○ 사회의식 ○ 수직적 집합주의 ○ 수평적 집합주의 | ▼ 수직적 개인주의 ▼ 부르조아 ▼ 수평적 개인주의 ▼ 사이버 보헤미안 |
| 공동체적 개방형 | ▲ 개방성 ▲ 수평적 집합주의 | ○ 사이버 보헤미안 ○ 부르조아 ○ 사회의식 ○ 수직적 개인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 | ▼ 남아선호 ▼ 가부장적 태도 ▼ 여피 ▼ 수직적 집합주의 ▼ 전통가치 |
| 전통주의적 보수형 | ▲ 남아선호 ▲ 가부장적 태도 ▲ 수직적 집합주의 ▲ 전통가치 ▲ 사회의식 ▲ 부르조아 ▲ 수평적 집합주의 | ○ 사이버 보헤미안 ○ 여피 ○ 수직적 개인주의 ○ 수평적 개인주의 | ▼ 개방성 |

(주) ▲: 가치범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 ○: 가치범주의 성향이 중간적인 경우, ▼: 가치범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낮은 경우

표 4. 한국 사회의 라이프스타일 분포

| 라이프스타일 유형 | 비율 | 특성 |
|------------|-------|--|
| 전통주의적 보수형 | 12.6% | 전통적 성향이 강하고 상당히 보수적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다. |
|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 23.2% |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가족을 위해 성공하길 원한다. 보수적이며, 수평적인 대인관계를 선호하지만, 사회의식이 낮다. |
| 현실주의적 동조형 | 33.4% | 뚜렷하게 높은 성향이 없고,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보헤미안 성향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
|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 16.8% | 모든 일의 중심이 자신이며 타인과의 경쟁에 익숙하고 성취지향적이다. 성공을 중시하면서도, 보헤미안 성향이 강하다. |
| 공동체적 개방형 | 14.0% | 동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개방적이다. 사회의식이 높지만, 개인의 물질적인 성공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

<그림 4>의 학력별 분포($\chi^2=63.121, df=12, p<.001$)를 보면, 고학력층에는 공동체적 개방형이 많으며, 저학력층에는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이 많았으며, <그림 5>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은 블루칼라,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은 화이트칼라로 대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주의적 동조형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역별 라이프스타일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chi^2=112.612, df=28, p<.001$, 그림 6 참고), 전국적으로는 현실주의적 동조형,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공동체적 개방형, 전통주의적 보수형의 순서였으나, 인천/경기의 경우,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이 전체의 27.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4개 유형이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의 가치가 타 지역보다 더욱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은 전국 분포와 비슷한 반면에, 대구/경북의 경우 현실주의적 동조형(35.1%)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공동체적 개방형(23.8%)이었고, 개인주의적 보보스형(8.3%)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어, 같은 경상도라고 하더라도 경남과 경북의 라이프스타일은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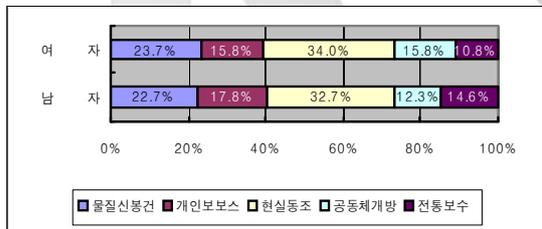


그림 2. 성별 라이프스타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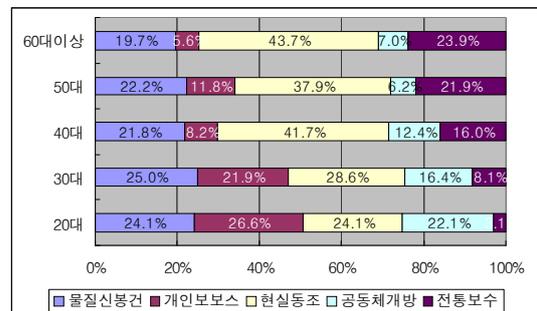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라이프스타일 분포

광주/전라 지역은 현실주의적 동조형이 4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다음이 개인주의적 보보스형(21.6%)이었고, 강원 지역도 광주/전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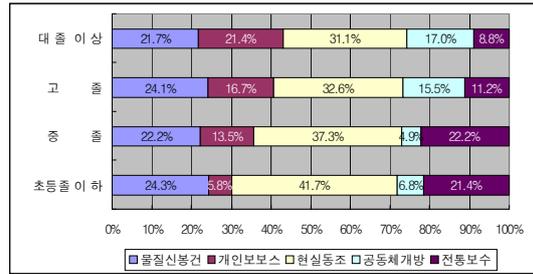


그림 4. 학력별 라이프스타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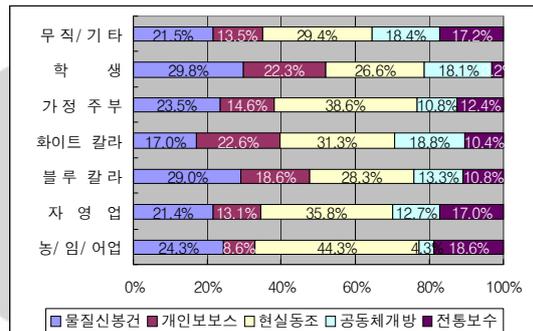


그림 5. 직업별 라이프스타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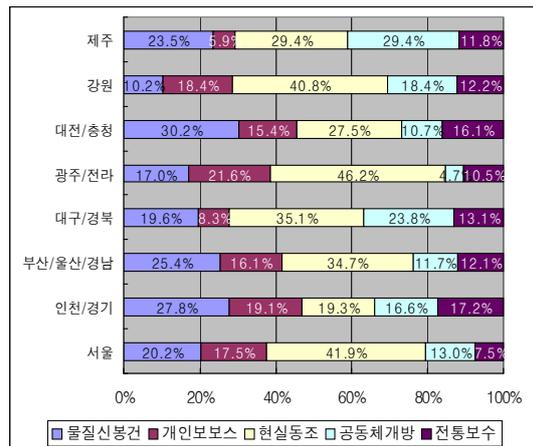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라이프스타일 분포

2.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징

① 전통주의적 보수형

| 전통주의적 보수형 (12.6%) | |
|-------------------|---|
| 주요 속성 | - 전통 가치 존중 (사회문제 관심/비관적) - 남성우월주의 - 집단/조직에의 희생/의무를 당연시 - 개방성/관용 부족 |
| 주장 | “나라 걱정에 잠 못이룬다”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 “내 생각은 틀린 게 없다” |
| 좋아하는 단어 | 절약, 우리, 질서, 잘살기, 순응, 복종, 존중, 남녀유별, 점잖은, 품위, 고전 |
| 싫어하는 단어 | 개인주의적, 변화, 반항, 독립, 낭비, 이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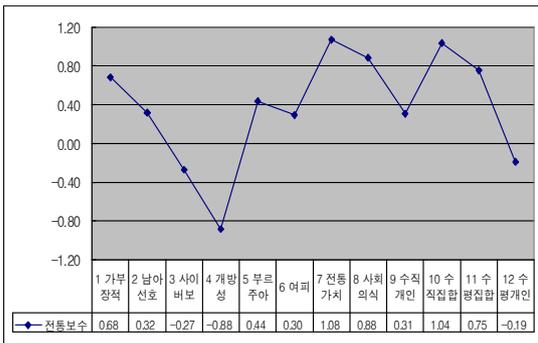


그림 7. 전통주의적 보수형의 전형적인 프로파일

인구통계학적으로 전통주의적 보수형은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약간 많고, 상대적으로 충청권에 많이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존중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관적이다. 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매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 지라도 남성우월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하다.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나 조직을 위해 희생하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다소 경직되어 자신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뿐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23.2%) | |
|--------------------|---|
| 주요 속성 | -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 - 집안, 학벌, 연줄, 성역할, 상하서열관계 등 전통 가치 존중 - 물질 중시 - 개인/가족만의 행복 추구 |
| 주장 | “비싼만큼 값어치한다” “내용 못지 않게 포장도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은 중요치 않다” |
| 좋아하는 단어 | 명품, 고급스런, 세련된, 여유로운, 성공한, 존중, 가족, 부자, 유행, 상류 |
| 싫어하는 단어 | 시사문제, 뉴스, 싸구려, 개혁적, 뒤쳐진, 세상을 위해서, 바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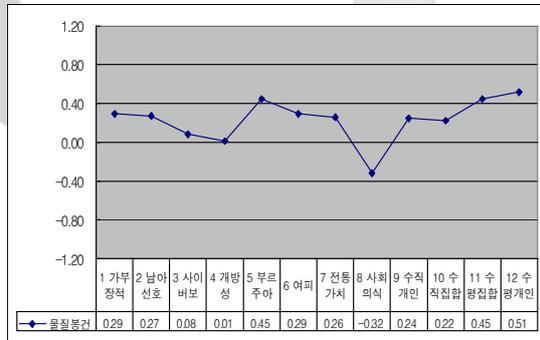


그림 8.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의 전형적인 프로파일

인구통계학적으로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은 모든 연령대에 22~25%씩 존재하고, 학력별로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블루칼라와 학생에 약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남아선호사상이나 상하서열적 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자신과 즐거운 삶을 위해 쓰

일 때 비로소 가치롭다고 여긴다.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집안, 학벌, 연줄 등 전통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일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이나 개성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외의 공공의 문제, 즉 사회나 정치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③ 현실주의적 동조형



그림 9. 현실주의적 동조형의 전형적인 프로파일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현실주의적 동조형은 5개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40~50대, 저학력층, 자영업자와 주부, 광주/전라에서 더 많았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현실이나 사이버공간)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투자나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을 힘들어하며, 물질적인 성공이나 타고난 개인의 배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철저하게 개인중심적인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도 싫어한다. 반면 가족이나 조직을 위해 희생과 의무를 감내하는 것에 다소 수긍할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표할만한 뚜렷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④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그림 10.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의 전형적인 프로파일

인구통계학적으로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은 주로 20~30대,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들에게 타인은 경쟁상대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만의 성공이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의 성공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은 재미있게 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한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직업을 갖고 싶어한다. 성공을 위해 고등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타고난 배경이나 연줄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⑤ 공동체적 개방형

| 공동체적 개방형 (14.0%) | |
|------------------|--|
| 주요 속성 | - 강한 개성, 그러나 뜻만 통하면 나이, 성별, 지위를 초월하여 개방성을 발휘하고 공동체 형성 - 개인적 출세와 사회적 인정에 비중을 적게 둔다 - <노사모>가 대표적 |
| 주장 | “뜻만 통하면 우리는 하나이다” “다르게 태어났어도 같이 잘 살아야 한다” |
| 좋아하는 단어 | 평등, 같이, 함께 나누기, 즐거운, 개방적, 자율적, 허물없이, 솔직히, 상황에 맞게 |
| 싫어하는 단어 | 혼자서, 명령, 간섭, 전통, 규범, 나이순서대로, 고정불변, 서열, 통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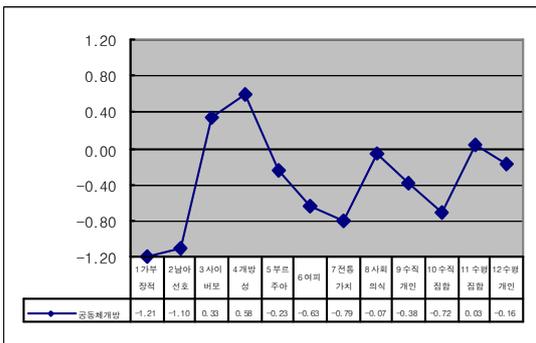


그림 11. 공동체적 개방형의 전형적인 프로파일

인구통계학적으로 공동체적 개방형은 주로 20~30대, 고졸 이상, 화이트칼라,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약간 많이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잘 협력한다. 유유상종에 기반하며, 그 울타리안 내에서 맘껏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너그럽다. 매우 동료나 또래 중심으로, 그들의 성공을 마음껏 기뻐하고 나눈다. 반면 이들은 위계적인 상하서열과 우열성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 규범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안에서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 호의적이고 개방적일 뿐이다.

논 의

현재 한국 사회에는 5개 라이프스타일, 즉 현실주의적 동조형(33.4%),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23.2%),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6.8%), 공동체적 개방형(14.0%), 전통주의적 보수형(12.6%)이 존재하고 있음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다. 각각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 5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정 상품에 대한 기호,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중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차이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라이프스타일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예가 2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2003년 하반기에 창당된 ‘열린우리당’의 이름이다. 사실상 그 명칭은 ‘공동체적 개방형’에서 앞뒤가 바뀐 동일한 의미이다. 정당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새민주당, 참여민주당, 국민참여민주당, 국민통합당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이르렀고,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는 기사(오마이뉴스,

2003)를 보면, 이 집단을 특징짓는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코드론’이다. 여기서 코드 역시 라이프스타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 공동체적 개방형 코드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인 이유는 앞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공동체적 개방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패러다임)’에 대한 노골적인 안티·반감·저항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라이프스타일이 각 시대에 따라 또는 급격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연구 결과는 이런 변화를 각 출생동시집단의 라이프스타일 분포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번 2003년 전국 라이프스타일 연구결과와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라이프스타일 분포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비슷하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결국 2003년의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이 주도했음을 암시한다. 2003년 연초부터 전국을 흔들었던 로또 열풍은 바로 부동산 투기와 “10억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새롭게 등장한 참여정부조차도 “2만불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1980년대 개발 시대의 구호를 다시 부활시켰다. 초등학교생에게조차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천만원 모은 아이’를 우상시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의 축적에 대해 이중적일 정도로 어쭈뻐한 태도를 취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부 그 자체를 신봉하는 생활태도로 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의 또다른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새로 등장한 노무현 정부와 기성세대(혹은 보수언론)를 중심으로 한 우익 보수의 대립이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분포는 바로 이런 대립이 왜 호각수로 이루어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적 성향은 반대이지만 정치적 관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극적인, 공동체적 개방형과 전통주의적 보수형은 바로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와 50대

이상 출생동시집단에서 비슷한 비율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 문제는 어느 한쪽에 의해 대세가 만들어지기 대단히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03년 3월에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회는 서로 다른 출생동시집단과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된 흥미로운 사례였다. 어떤 사람들은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대드는 것을 보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파괴라고 보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그들을 권위주의적이라고도 보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어지는 맥락들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기대받기 마련이고, 이에 적응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0대는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 20대는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 30대는 공동체적 개방형과 현실주의적 동조형이, 마지막으로 40대와 50대는 현실주의적 동조형과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각기 대표적인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유형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개인이 현재 당면한 발달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각 연령집단 내에 다른 심리적 세대 집단들이 분포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세대별로 구별되는 특성이고, 또 어디까지가 발달과업에 따른 역할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30대를 기준으로 어린 세대와 나이가 든 세대 사이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40대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집단의 와중에 있고, 30대가 50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특정 출생동시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다른 발달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전의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면서 자기가 속한 출생동시집단 내부에서 공유되는 특성을 지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할 출생동시집단의 기호, 가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의 청사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10년이란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유형들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각각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특정 출생동시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Michel Foucault는 “계몽(enlightenment)이란 정체성의 경계선을 뛰어넘음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기획이”라고 정의하였다. 계몽은 지식체도 아니고 낡은 것에 대한 비판도 아니다. 이러저러한 경계에 대한 비판은 계몽이 아니라 거의 본능의 일부다. 계몽은 낡은 정체성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분명해진다.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나 전통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모두, 이제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계몽된 수준에서 우리가 누구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생동시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은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계몽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시구처럼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찬양받을 일이다”. 필자의 의심은 ‘20대라고 다 같은 20대가 아니고, 60대라고 다 같은 60대가 아니다’는 상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 ‘어설픈 이름붙이기’를 좋아한다. 연령이나 인구통계학적 기준이 아닌, 심리사회적 속성으로 (필자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심리학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임무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필자가 강조하는 주장은 “내가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설명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라이프스타일 설명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공유를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확실하고, 인간 정신과 독립

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은 가능하지 않(It is impossible to obtain absolute certain, mind-independent, objective knowledge)”(Overton, 1998)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 · 김의철 ·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홍규 (1998). 한국 소비자의 가치체계연구: 궁극적 가치와 소비신념의 가치구조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9(4), 57-82.
- 나은영 ·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계간 사상, 2002년 가을호, 8-27.
- 박성연 · 최신애 (2000). 경제적 변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추세 연구. 마케팅연구, 15(3), 1-18.
-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19-35.
- 박재홍 (1992).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8, 11-66.
- 설동훈 · 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계간 사상, 2002년 가을호, 28-52.
- 스타노비치 / 신현정 역 (2003). 심리학의 오해. 도서출판 해안.
- 오마이뉴스 (2003). 신당 당명 ‘열린우리당’으로 확정. 오마이뉴스, 2003년 10월 23일자.
- 조혜정 · 엄기호 (1999). IMF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5,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주간조선 (2004). 한국의 두 코드 P세대 vs Wine세대. 주간조선, 2004년 5월 6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제16대 대선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채서일 (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 46-63.

- 황상민 (1999). 세대의 계열과 인생주기를 통한 미래사회 성격의 예측. 현상과 인식, 1999년 겨울호.
- 황상민 · 김도환 (2003)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분석에 나타난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의 심리.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 황상민 · 김지연 (2003) 소비자 선호와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한 컨셉트 제품의 감성 이미지 분석.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대한인간공학회.
- 황상민 · 장근영 (2003) 온라인 게이머의 라이프스타일과 집단유형.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대한인간공학회.
- 황상민 · 양진영 (2001). 한국사회의 세대차와 한국인의 심리발달의 특성에 대한 탐색. 제1차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 황상민 ·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 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 전이적 공존 관점에 의한 세대 이미지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 (3), 75-93.
- 황상민 · 양진영 · 강영주 (2003). 세대 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 (2), 17-33.
- Inglehart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S.A. Greyser)*. Chicago, IL: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40~149.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 ~3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59 ~ 381.
- Solomon, M. R. (1994). *Consumer Behavior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Overton, W. F.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Philosophy, concepts, and method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1* (5th ed., pp. 107-188).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Triandis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Press.

The Study on Korean's lifestyles and its' Generational Identity: A Psychological Model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Korea

Whang, Leo Sang-Min and Kim, Dowhan

Yonsei University

There were numerous attempts to explain diverse social issues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which were well expressed Worldcup, 2002 & 2002 presidential election. At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s of generations in Korea was not caused by that of age, but by that of cohort groups. The psychological model of generation was proposed to explain the differences of lifestyle among different cohort groups (Whang, 1999).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lifestyles of different cohorts. The indices of 12 psychological values were applied to 1500 adults that were sampled on national survey. Five types of lifestyles were identified to explain the Koreans' values and attitude across age groups of 20 to over 50. Realistic-conformer type takes about 33.4%, materialistic neo-feudalist about 23.2%, Individualistic Bobos about 16.8%, Collectivistically Open-hearted about 14.0%, Traditional Conservative about 12.6%. The proportion of lifestyle groups were compared by diverse population fea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for correlating individual lifestyles to cohort characteristics.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may be based on those of lifestyles of diverse cohort groups.

Key words : lifestyle, generation, generation gap